영대신문

영대신문은 대학인의 양심을 대변합니다

1657호 2020년 6월 8일 월요일

1954년 6월 1일 창간 | yureka.yu.ac.kr | 발행인: 서길수 원장: 최동주 부원장: 주지연 편집국장: 이소정

| 04 대학
무지개 뜨지 못한 곳에서의 외침

| 05 문화
누구나 '흥얼'거리는 트로트 전성기

| 06~07 특집
출발 캠퍼스 여행!

| 08 인물
문학청년에서 시인으로, 고명재 시인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한 학기

학교도 학생도 모두 혼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개인위생 관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해졌다. 대학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교육 당국, 대학,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학생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봤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

1월 27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감염병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학사 일정 일부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2월 6일, 우리 대학교는 긴급교무회의를 열어 이번 학기 개강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학기 종강 또한 6월 26일로 1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우리 대학교는 2월 27일, 긴급교무회의를 열어 개강 후 2주간 비대면 수업 실시를 결정했다. 이후 대면 수업 시작일은 4차례 연기됐으며 4월 21일에는 한 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이 결정됐다. 단 5월 13일부터 일부 실험·실습·실기·이론 교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부분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4차례에 걸쳐 비대면 수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교수와 학생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기영 교무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비대면 수업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에 연기 결정이 잦았다"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시행 초기, 기술적 시행착오 겪기도

한편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자 우리 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온라인 강의에서 영상 또는 음성이 재생되지 않거나 필기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 일부 교수는 온라인 강의 경험이 없어 강의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거나 온라인 강의 촬영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대학교 교수 A 씨는 "강의 녹화 중 발생한 작은 실수를 편집하지 못해 새로 녹화한 적도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교육개발센터는 온라인 강의 질 향상과 교수의 원활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안내 및 매뉴얼 작성 ▲스튜디오 사용 가능 시간 연장 ▲일반 강의실에 온라인 강의 장비 지원 ▲단과대 행정실을 통한 웹캠, 팬 마우스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쾌적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 이와 함께 계절학기, 2학기에도 언제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미영 스마트교육팀장은 "쾌적한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교 방침을 잘 따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운동 실시돼

3월 6일과 지난달 5일,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계명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대구·경북 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제출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에 제출한 성명문의 답변을 전달 받았으나, 교육부 측은 등록금 일부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 운동'을 계획했고, 이를 공식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일,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교 본부와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 촉구 집회를 실시했다. 박종주 총학생회장(식품자원경제4)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은 전보다 떨어졌고, 학생들은 학교시설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등록금 일부 반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이하 경산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대학가 대책에 대한 사과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교육부와 각 대학에 요구하며 교육부가 위치한 세종시를 향해 230Km 종주에 나섰다. 경산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0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택 기자 ket0924@ynu.ac.kr
조현희 기자 jhh1220@ynu.ac.kr

| 사령

편집국장 이소정(통계3)
대학부 기자 조현희(경제금융2)
문화부 기자 이연주(국어국문2)
문화부 기자 조은결(국어국문3)
사회부 기자 김은택(가족주거2)
편집부 기자 김민석(건설시스템공2)
수습기자 권지효(천마인재1)
수습기자 김도현(정치외교1)
수습기자 남혜원(국어국문1)
수습기자 박수연(언론정보1)
수습기자 엄수진(국어교육1)
수습기자 여강희(국어교육1)
수습기자 이상준(경영1)
수습기자 정유진(언론정보1)
이상 14명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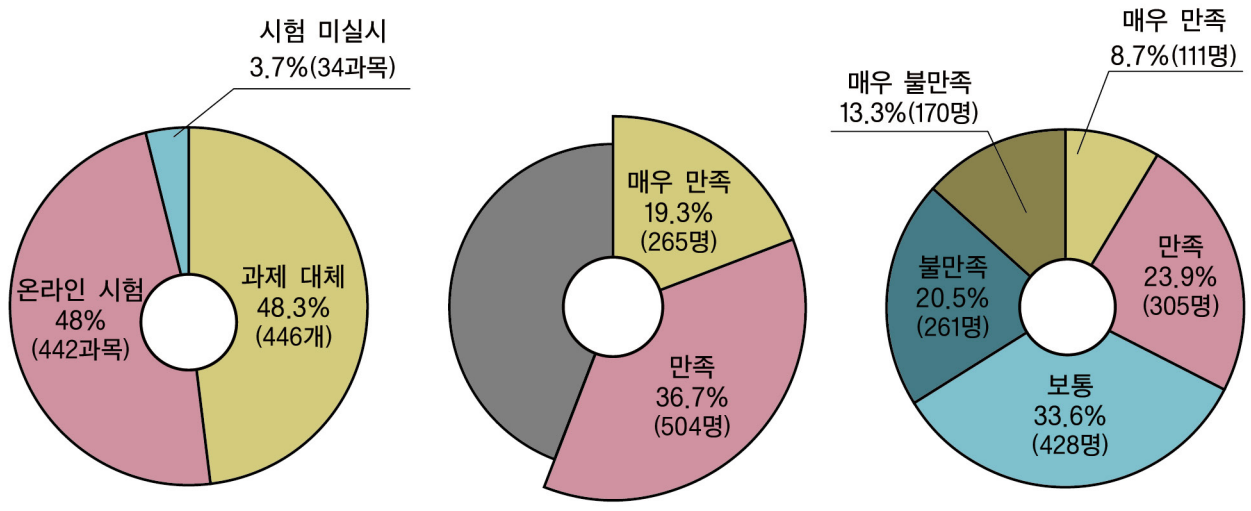
편집국장 김채은(국어국문4)
문화 및 편집부장 윤신원(사회3·휴)
사회부장 김달호(정치외교3·휴)

이상 3명 퇴임

대학부 준기자 원대호(건설시스템공1·휴)

이상 1명 의원면직

온라인 중간시험 시행착오, 기말시험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치러진 중간시험은 교수의 권한하에 온라인, 오프라인, 과제 대체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중간시험 시행 결과=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중간시험은 온라인, 과제 대체 등 교수 재량으로 실시됐다. 이는 중간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기말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개설된 922개 교양강좌는 ▲‘과제 대체’ 48.3%(446개) ▲‘온라인 시험’ 48%(442개) ▲‘시험 미실시(비대면 수업 진행)’ 3.7%(34개)로 중간시험을 진행했다. 한편 대구·경북 소재 타대학의 경우 과제 대체 또는 기말 통합으로 진행됐다. 이에 박외숙 수업학적팀장은 “교수 및 학생마다 원하는 시험방식이 달랐다”며 “강의 특성상 시험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방식은?=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 1,375명을 대상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과제 대체 만족도’ 질문에 ‘매우 만족’ 19.3%(265명), ‘만족’ 36.7%(504명)로, 과반수가 과제 대체에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온라인 시험에 응시한 1,275명에게 ‘온라인 시험 만족도’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 8.7%(111명) ▲‘만족’ 23.9%(305명) ▲‘보통’ 33.6%(428명) ▲‘불만족’ 20.5%(261명) ▲‘매우 불만족’ 13.3%(170명)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험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의 37.1%(473명)가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없음’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교수 A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 안타깝고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기말시험,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치러지는 기말시험은 강좌별로 오프라인 시험, 온라인 시험, 과제 대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우리 대학교는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변별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학생 문진표 등록 ▲시험 중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및 충분한 강의실 공간 확보 등을 해야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시험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본 수업시간 ▲오프라인 시험이 끝나는 저녁시간 ▲기말시험 기간 주말에 실시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험 응시 시 원활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말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본부 측은 해당 수업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므로 해당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말고사 이후 2주 동안 보충 학습을 가지는 강의의 경우, 성적평가 기간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박종주 총학생회장(식품자원경제4)은 “학생마다 원하는 시험방식이 다르고 강의마다 환경이 다르다”며 본부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연주 기자 lyj0827@ynu.ac.kr

학교 시설 운영 현황

비대면, 비접촉 환경 조성에 분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 내 일부 시설의 운영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앙도서관, 인문계 교직원 식당, 학생상담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을 알아봤다.

중앙도서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지난 2월 19일,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교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폐쇄됐다. 도서관이 휴관하는 동안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도서 대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킹 드라이브 스루 ▲예약도서 안심 대출 ▲책 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각 층의 자료실을 개방했지만,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룸 개방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 좌석의 옆 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료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열화상 감지기를 설치해 적정 체온의 학생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겨울방학 때 예정된 1열람실 환경개선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여름방학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인문계 교직원 식당의 상황은=인문계 교직원 식당은 3월 첫째 주를 끝으로 임시휴업 공지를 내렸다. 이후 지난 4월 6일, 인문계 교직원 식당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학교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당 소독, 칸막이 설치 등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학내구성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달비를 받지 않는 배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곽병철 총괄이사는 “코로나가 종식돼 운영을 재개하면 많이 찾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참여프로그램, 달라진 점은?=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심리검사 ▲집단상담 ▲YU peer 서포터즈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중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Google Meet를 활용한 화상채팅으로 운영된다. 한편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심리상담에서 비언어를 이용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영찬 전자정보팀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우리 대학교가 활기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연주 기자 lyj0827@ynu.ac.kr

‘코로나 위로금’이 낳은 갈등

지난달 27일, 우리 대학교는 코로나 관련특별장학금(일명 코로나 위로금)으로 학부 재학생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1일, 우리 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학부 재학생 모두에게 코로나 위로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현재 지급된 코로나 위로금은 약 20억 원으로, 이는 전액 교비로 충당됐다. 이에 해당 교비는 직원장학회 등 각종 기관과 동문이 기탁한 발전기금 및 교내 예산감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학부(과)별로 납부하는 등록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전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위로금과 별개로 등록금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주 총학생회장(식품자원경제4)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상대적으로 질 낮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는 당연하다”며 “대학은 코로나 위로금 10만 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부 측은 이번 코로나 위로금은 등록금 일부 환불이 아닌 재학생 모두가 공통된 재난으로 고생했기에 지급하는 위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부(과)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없고, 비등록금 수입 감소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완 예산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재정이 어렵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도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도 힘들지만, 대학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kms0422@ynu.ac.kr

코로나19로 인한 학내외 상권의 피해는?

지난 2월 18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늦췄다. 개강 연기로 대학가가 조용해지면서 대학가 상권은 ‘초토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코로나19로 대학 앞 한산=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대학교 정문 앞 대학가 상권(일명 오렌지타운)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오렌지타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줄었으며,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주 소비층인 대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또한 지난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사태 초기보다 유동인구가 늘었지만, 계속되는 비대면 강의로 대학가를 찾는 학생들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오렌지타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80% 넘게 줄었다”며 “오렌지타운 상인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영업 중인 그라찌에 외국어교육원점

학내 상권도 찬바람=우리 대학교에는 총 34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학내 일부 임차인들에 따르면 학내 사업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 영대문구는 국제교류센터에 위치해 교외 소비자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루 손님이 크게 줄었다. 또한 그라찌에 외국어교육원점은 학내 출입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임시영업을 시작했다. 한편 학내 사업체 중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여전히 학내 소비층이 적어 임시영업을 포기한 곳도 있다.

임차인들을 위한 우리 대학교의 대응은?=우리 대학교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임차인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또한 학내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임차인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임시영업과 같은 탄력영업을 유도해 임차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형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교육부와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권고에 따라 임차인들과 영업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요구한 임차인 B 씨는 “하루 매출이 거의 없어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거운 실정”이라며 “현시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자로서는 현 상황이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0422@ynu.ac.kr

뉴스 브리핑

국내 대학 최초로 ‘독도자생식물원’ 조성

지난달 18일, 우리 대학교 독도연구소는 대학본부 본관 옆 정원 부지에서 독도자생식물원 기공식을 열었다. 독도자생식물원은 독도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이영학, 정서인 라운드랩 공동 대표가 기탁한 발전기금 3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독도자생식물원에는 약 57종의 독도 자생식물을 심는다. 이는 독도연구소에서 일반 시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도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대학교에는 매년 2,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독도 아카이브실과 같은 독도 관련 교육 시설이 있어 앞으로 독도자생식물원의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와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

지난달 22일, 우리 대학교는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위해 경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 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생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대학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산시와 우리 대학교는 ▲안전하고 건강 지향적인 캠퍼스 환경조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계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에 서길수 총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건강관리센터 등 유관 부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휴간공고

1657호(6월 8일 자)를 끝으로
이번 학기 신문을 종간합니다.

종강 후 속보는 영대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회·직원노조 총장선임규정 개정 요구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6대 총장 선임이 진행된다. 이에 우리 대학교 교수회 및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에서는 총장 선임을 앞두고, 법인이사회(이하 법인)에 우리 대학교 총장선임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총장선임 방식은?='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총장후보자 심사 ▲최종총장후보자 추천 ▲법인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총추위는 최종총장후보자를 선정해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며, 법인 추천 3인, 교수회 추천 3인, 직원노조 추천 1인, 총동창회 추천 1인, 법인 이사장 추천 지역 저명인사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가 총장 후보자를 평가한 후 최종총장후보자 3~5명을 '순위 표시 없이' 법인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개정안은?=교수회와 직원노조는 2009년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이래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뜻에 따라 총장 선임이 돼왔다면서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 총장선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교수회 및 직원노조 9인은 법인 산하 영남학원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연구 및 작성한 '총장선임제도 개정안'과 타 대학의 예를 참고해 '영남학원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 위원을 22명으로 확대하고 교수 대표 11명, 직원대표 4명, 총동창회 추천 및 학생대표 각 2명, 법인대표 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총추위가 자체 심사를 통해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정규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견발표와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후 정규교직원이 각 후보에 대한 가부투표를 실시해 최종총장후보자 2명의 '득표율 순위'를 명시해 법인에 추천한다. 이를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담았다.

법인의 반응은?=지난 12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총추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비율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이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교수회 및 직원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인 이사장과의 면담을 공문 및 유선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12월 한 차례 면담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4월 1일 교수회 및 직원노조에서 협의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교수회 및 직원노조 측은 ▲법인 ▲총장선출제도 ▲총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승렬 교수회 의장은 "법인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재숙 법인 이사장은 "향후 법인에서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되면 이사회에 보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준비 과정에서 법인과 교수회에 질문지를 제시했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법인과 교수회의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해당 답변 전문을 영대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은결 기자 jeg1224@ynu.ac.kr

동아리 등록비 전액 환급 결정

우리 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가 중앙동아리 (재)등록비를 부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동아리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총동연은 사과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중앙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재)등록비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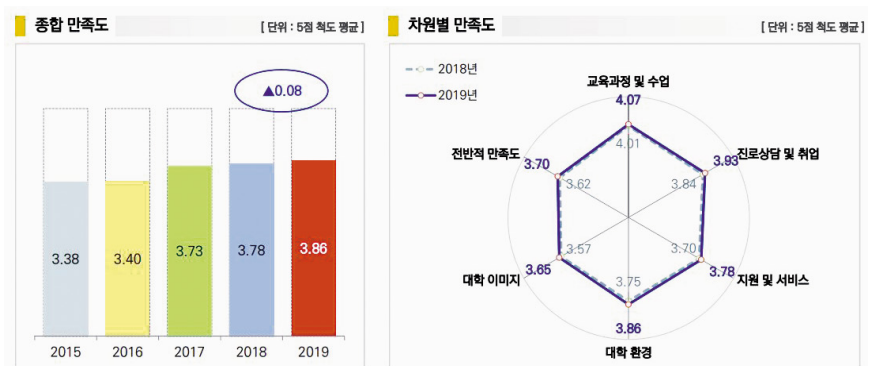
우리 대학교 학생이 동아리를 구성해 총동연에 등록하고자 하면 매 학기 (재)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총동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번 학기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비가 환급되지 않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총동연은 (재)등록비의 60%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우리 대학교 일부 학생은 (재)등록비를 전액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동연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구성원이 자주 사용하는 대여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환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동연 회칙 16조에서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제'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권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총동연 임원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결정한 것은 회칙 위반이기 때문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동연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중앙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당 문제에 대해 재논의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중앙동아리 대표자 62명 중 48명이 전액 환급에 응답하면서 동아리 (재)등록비 전액 환급이 결정됐다.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김은택 기자 ket0924@ynu.ac.kr

2019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영남대 제공)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재학생, 졸업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9년 영남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각 부서 및 학부(과)에서 교육 만족도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된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우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11,029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 항목은 ▲교육과정 및 수업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및 서비스 ▲대학 환경 ▲대학 이미지 ▲전반적 만족도였다. 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상승했다. 만족도 측정 차원별로 교육과정 및 수업이 4.07점으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진로상담 및 취업 3.93점, 대학환경 3.8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 환경 차원이 지난해 3.75점에서 올해 3.86점으로 0.11점 상승했다.

지난 1월 22일, 평가팀은 해당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15명을 선발해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전공과목의 현업·실무 연계성 개선, 교수 상담 실효성 제고, 강의시설 개선 등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보였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 졸업생 종합 만족도가 평균 3.47점으로 지난해 대비 0.16점 상승했다. 더불어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우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의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의 종합 만족도는 3.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05점 상승했다.

이에 김정우 평가팀 담당자는 "해당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각 부서 및 학부(과)에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정 기자 lsj0729@ynu.ac.kr

사진보도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1위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이 9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서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전국 1위(73.2%)를 달성했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8회 변시에서도 전국 2위(70.0%)의 성과를 낸 데 이어 올해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9회 변시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지난달 8일 법무부가 대학별 합격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9기 입학생 71명 중 5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73.2%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이 매년 이 같은 성과를 이어오는 것은 교수와 학생, 직원이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지도교수가 모의시험을 강평하고 학생들과 함께 그룹 학습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지방대 학생인 것에 대해 위축돼 있었는데, 이번 로스쿨의 성과로 우리 대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조현희 기자 jhh1220@ynu.ac.kr

과학도서관, 1년 뒤에 만나요!



리노베이션 전 과학도서관의 모습

우리 대학교 과학도서관은 1985년에 준공된 이래로 많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오는 7월,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 과학도서관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미흡한 냉난방 시설 ▲콘센트가 설치된 좌석 수 부족 ▲창호의 단열 미흡 ▲방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고 사업을 통해 과학도서관 일부 열람실은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됐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존재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이종우 동문(기계64)이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을 위해 발전기금 50억을 기탁했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는 발전기금 50억과 교비 50억으로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사는 ▲냉난방 시설 보완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옥상 방수 작업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외벽 교체 등이 진행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법을 위해 ▲토론을 위한 협력 학습 공간 ▲칸막이가 있는 개별 공간 ▲IT 및 멀티미디어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설계도가 완성되면서 지난 4월에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오는 6월 말 재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가 선정되며, 7월 초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서태환 시설팀장은 "재유찰이 되더라도 오는 2021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과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과학도서관이 완공되면 많은 이용을 해주되 시설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조심히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은결 기자 jeg1224@ynu.ac.kr

영대 정보통

[학생지원팀] '2020 천안흥타령춤축제' 경연 및 공연팀 모집
- 일시: 4월 20일(월) ~ 7월 12일(일)
- 장소: 천안삼거리 공원 및 천안시 일대
- 모집: 가. 경영분야: 전국 춤 경연대회, 거리댄스 퍼레이드, 프린지공연 등
  나. 공연분야 : 프린지공연
-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접수
- 문의: 041-900-7393/7395

[학생상담센터] 모두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 일시: 6월 12일(금)
- 내용: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함께 공유 및 소통
- 참여 강사: 마은애 강사 (前 계명대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 대상: 본교 재학생 (선착순 20명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학생지원팀] 1회 부마민주항쟁 문학 창작공모전
- 일시: 5월 14일(목) ~ 9월 23일(수)
- 대상: 20세 이상 성인
- 접수방법: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담당자앞
- 문의: 055-265-1018

[학생지원팀] 2회 119문화상 미술 분야 홍보 및 안내
- 일시: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대상: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가. 미술분야: 상상화, 기록화
  나. 문학분야: 동화, 소설
- 문의: 044-205-7011/7013

[취업및현잡실습지원팀] IGE, 해외인턴 참가자 모집
- 대상: 2020-1학기 현재 5학기 이상 이수자
- 내용: 미국 기업 인턴십 경험을 통한 실무경험 및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증가
- 문의: 053-810-1049

[학생지원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 일시: 8월 10일(월) 9시 ~ 10월 중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대상: 제한 없음
- 문의: 043-220-4453/4459

[학생지원팀] 2020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퍼포머 모집 안내
- 일시: 5월 20일(수) ~ 6월 12일(금)
- 대상: 과학연극, 예술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 성인
- 접수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창구
- 문의: 02-559-3811

[취업및현잡실습지원팀] KT&G 치어링 뱃지 챌린지 및 디자인 공모전
- 일시: 5월 21일(목) ~ 6월 22일(월)
- 대상:
  가. 챌린지: 제한 없음
  나. 디자인 공모전: 2~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내용: 코로나 극복 동참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프로젝트

[학생지원팀] 2020 제 21기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 일시: 5월 26일(화) ~ 6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 내용: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
- 문의: 02-2259-2236/2238

[학생지원팀] 2020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계절학교 교육봉사자 모집
- 일시: 8월 3일(월) ~ 8월 14일(금)
-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학습지도
- 대상: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이수 중인 학생 (일반학과 교직이수 학생도 가능)
- 문의: 053-234-0165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퀴어인권운동의 핵심 슬로건이다. 아직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열리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퀴어(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학에 존재하는 퀴어들의 상황은 어떨까? 이에 퀴어의 대학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학가 퀴어 혐오, 현재 진행 중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퀴어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도 퀴어 혐오는 존재한다. 이에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퀴어 혐오와 대학 내 퀴어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가 보여주는 퀴어 혐오=지난달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다. 세상의 관심은 확진자가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부분에 집중됐다. 언론에서는 특히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기사들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국민일보, 5월 7일 자) 기사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제목에 ‘게이클럽’을 명시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도 확진자의 연령과 직업, 근무지역 등 신상정보를 노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국민일보는 기사 제목을 ‘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로 수정했지만, 해당 보도가 야기한 문제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포털사이트에는 ‘게이’, ‘게이 클럽’ 등의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성소수자들의 행태가 차별받을 만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과 개인의 성적 지향이 연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성적 지향을 부각하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개인의 성정체성을 특정 질환과 연결하는 것은 아웃팅의 가능성이 있어 성소수자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감염내과)는 “프라이버시로 개인을 매도하는 것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대학 내 퀴어들은 어떤 차별을 받으며 살아갈까? 대학가에 흔한 화장실은 남·여·남녀공용 세 가지로, 트랜스젠더가 사용할 화장실은 없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트랜스젠더로서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지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잦다”며 학내에 성중립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이제는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고 교류할 때”

퀴어 혐오는 화장실 밖에서도 나타난다. 서강대 성소수자 모임이 붙인 현수막은 2년간 훼손됐다. 실제 서강대 커뮤니티에선 ‘성소수자 얘기 좀 그만하자.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학내 갈등만 조장한다’, ‘퀴어가 벼슬이냐’와 같은 언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도 수업 중 ‘동성애 찬반’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개인의 성적 지향인 동성애는 누군가 찬성하고 반대해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게이들이 여성적인 말투를 쓰거나 유흥을 즐긴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혐오는 아니더라도 퀴어에 대해 고정된 편견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B 씨는 “이러한 분위기로 커밍아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퀴어도 존중받는 곳으로=그렇다면 퀴어도 존중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실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퀴어 관련 강의가 거의 열리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퀴어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제 비마이너 칼럼니스트는 “학교에서 퀴어들이 겪는 차별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많은 학생이 퀴어가 겪는 혐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커밍아웃하는 대표자들이 여럿 등장했다. 2015년 김보미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이예원 전 고려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등은 당당히 커밍아웃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학가에서 퀴어 혐오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소수자들이 대학에 붙인 대자보는 꾸준히 훼손됐고, 교수들 또한 퀴어에 관한 차별적인 표현을 일삼는다. 이에 안희제 칼럼니스트는 “학생자치기구에서 퀴어 축제를 여는 등의 움직임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무지개 뜨지 않은 곳에도 그들은 있다

퀴어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아직 무지개가 뜨지 못한 대학에도 그들은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퀴어 동아리(YuniQue) 구성원 C, D 씨를 만나 퀴어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신이 퀴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C 씨: 고등학생 때 여자를 좋아한 후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한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남자가 되고 싶냐’ 혹은 ‘남자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에 반발감이 들었고, 여자라고 호명되는 것에도 거부감이 들어 트랜스젠더로 정체화를 하게 됐어요.

D 씨: 중학생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학내에서 퀴어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나.

C 씨: 수업 중에 교수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가 많아요. 한 교수는 강의 중 ‘여러분들은 성소수자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와 같은 편견이 담긴 말을 하기도 했죠.

D 씨: 한 동아리원이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에브리타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에 제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말씀하시라고 답글을 달았지만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던 황당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퀴어를 보는 인식이 어떠한가.

C 씨: 성소수자 얘기가 나올 때, 싫다고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들이 난무해요. 또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아직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D 씨: ‘퀴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해요. 퀴어에도 다양한 성적 지향성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퀴어에 대해 얕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인들에게 본인의 성적 지향을 알리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C 씨: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편견들로 인해 커밍아웃이 꺼려질 때가 있어요. 예컨대 트랜스젠더인 것을 밝히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와 같은 질문들이 날아오는 게 두려워 커밍아웃이 힘든 것 같아요.

D 씨: 제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커밍아웃하면 그걸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주변에서 아웃팅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선택한 성소수자들을 봤기에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대학에서 퀴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C 씨: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수들이 혐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문제로 삼더라도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의 혐오 발언을 제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D 씨: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 약자의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양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강의들이 존재해요.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역량도 충분하기에 그런 강의가 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C 씨: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데, 아직까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워요. 그렇기에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교류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D 씨: 아직 학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언제나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만 뻗으면 잡아줄 사람들이 있으니 성소수자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현희 기자 jhh1220@ynu.ac.kr

QUV에 대해 알아보자!



"엄마와 함께 왔어요"...광장으로 나온 성소수자들

(이데일리, 2018년 7월 14일 자)

‘QUV’란 무엇일까? Solidarity of University and Youth Queer Societies in Korea의 약자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이다. QUV는 2013년 20여 개의 대학 성소수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에 성적 정체성 포함을 요구하면서 설립됐다. 여기에는 우리 대학교 퀴어 동아리(YuniQue)를 포함한 전국 대학 내 71개 성소수자 단체가 가입돼 있다. QUV는 청년 및 대학생 성소수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의제를 찾아 연대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퀴어에게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가 겪는 부당한 일을 SNS나 서명 운동으로 대중에게 알리며, 집회 시위 현장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여러 단체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만들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방역당국과의 소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알리는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QUV는 앞으로도 대학 및 청년 사회 내에 실재하는 다양한 의제들에 연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찐, 찐, 찐, 찐,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진또배기' 이는 길거리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TV조선 '미스트롯'이 쏘아 올린 트로트의 인기는 식지 않고 트로트 열풍을 불러왔다. 이에 트로트 열풍이 변화시킨 흐름을 알아봤다.

잠들어있던 우리 안의 '흥'을 깨우며

현재 우리나라는 트로트에 푹 빠져있다. 한 음원 매체는 트로트 차트 신설 후 트로트 음원 스트리밍 수가 전년 대비 4개월간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트로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트로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에 트로트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트로트 열풍이 불러온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트로트가 변화해온 지난날='트로트'의 어원은 서양의 춤곡인 '폭스트로트(foxtrot)'에서 왔다. 폭스트로트는 미국과 영국에서 4분의 4박자로 추는 사교댄스의 리듬으로 미국의 해리 폭스가 고안했다. 트로트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유입된 폭스트로트와 일본 민속 음악이 결합한 '엔카'가 트로트가 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트로트의 기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어 오히려 한국의 트로트가 '엔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초기의 트로트는 정확한 명칭 없이 '유행가'로 불렸고, 이후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시기까지 일본의 억압과 전쟁에 대한 슬픔으로 비극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가 주를 이뤘다. 특히 1960년대는 '유행가'라고 불리던 노래가 '트로트'라는 명칭을 얻게 된 시기이다. 당시 트로트는 왜색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존재했고, 실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에 선정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 트로트는 청년문화의 영향을 받아 포크 및 록 장르 등과 결합했고, 이전에 비해 곡의 리듬이 빨라졌다. 트로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아는 남진·나훈아 등의 유명 가수들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트로트는 1990년대를 맞아 서태지와 아이들로 인해 등장한 댄스음악과 발라드, 록에 밀려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젊은 소비층을 사로잡지 못한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폴카 리듬을 결합한 장윤정의 '어머나', EDM 요소를 접목한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와 같이 트로트는 색다른 요소와 어우러져 인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온 결과, 2000년대 이후 트로트는 슬픔과 한을 대변하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흥겨운 분위기의 노래로 전환됐다. 그 예로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와 같은 곡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애창곡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트로트는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트로트의 분위기도 함께 밝아졌다"고 말했다.

트로트 바람이 불다=침체기를 극복한 트로트는 지방 행사 등에서 그들만의 입지를 다져왔지만,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트로트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트로트 열풍의 시발점이 된 트로트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은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하며 이른바 '송가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의 후속작인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라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러한 트로트 프로그램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흥'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해당 프로그램들의 어떤 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은 가요, K-pop, 힙합 장르와 주로 결합해 왔다. 하지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전례 없는 조합을 선보였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청자가 원하는 미방영분을 제공하는 등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만들어갔다. 더불어 미스터트롯에서는 태권트로트, 마술트로트와 같이 트로트에 이색 장르를 접목해 끊임없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열풍을 통해 송가인, 임영웅 등 무명의 인물을 대거 등장시킴으로써 장윤정, 박현빈, 홍진영을 끝으로 끊겼던 트로트 가수 계보를 이어갔다. 이에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며, 기존의 트로트 소비층이었던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층의 관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으로 트로트의 영향력이 입증되자, 방송사들은 앞다퉈 트로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반기에는 ▲KBS '트롯전국체전' ▲MBC '트로트의 민족' ▲MBN '보이스트롯' 등 다수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송출을 앞두고 있어 방송국들의 트로트 출하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예전에 비해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며 "이는 트로트에 대한 여러 실험 및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트로트에 긍정적 자극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트로트의 '유행쏠림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해 많은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기존과 별다를 바 없는 뻔한 형식을 선보여 한 자릿수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유사한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시청자들이 트로트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며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컨셉의 트로트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연주 기자 lyj0827@ynu.ac.kr
조은결 기자 jeg1224@ynu.ac.kr



취재를 마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이번 트로트 열풍을 통해 트로트가 가진 매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댄스, 발라드곡 위주로 들은 건 사실이다.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트로트를 즐겨듣는 또래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트로트 열풍은 기존 소비층이었던 중장년층에서 더 나아가 젊은층의 관심까지 확보하며 트로트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트로트의 유래나 발전과정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이번 문화기획을 준비하며 트로트가 걸어온 길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트로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중에게 다가갔다. 트로트는 왜색풍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적으로 변화했고 대중의 욕구에 맞게 여러 장르와 결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고정 관념처럼 갖고 있던 '트로트는 촌스럽다'는 생각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텔레비전이나 음원 매체에서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됐다. 트로트도 음악적 장르로서의 빛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트로트 열풍에 한몫한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은 트로트에 무관심했던 기자의 내재된 '흥'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번 열풍을 통해 젊은층이 트로트는 우리 세대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트로트가 대중을 위해 변화해온 것처럼 우리도 그에 발맞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트로트가 젊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 장기적으로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대구의 트로트 가수 최병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트로트 가수 최병윤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트로트 인생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중학교 시절, 저는 노래 실력이 좋아 음악 선생님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합창부에 들라며 선생님들께 시달리곤 했죠. 아마 제가 노래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회에 나가 입상한 경력도 있답니다. (하하) 하지만 제가 음악 하는 것을 지원해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는 자연스레 음악에 대한 열망을 접고 기계과로 진학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군대에 갔고, 헌병중사로 2028년도까지 복무할 계획이었어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군 복무 당시, 제가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노래에 대한 꿈을 접었는데도, 종착지는 결국 노래일 거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나와버렸어요. 그후 군대에서 번 돈을 불리고 싶어 투자를 했는데, 다 잃게 됐어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용기를 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망연자실했죠.

그래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대구 백화점 앞 무대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께 "저도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영상이 방송국까지 닿아 여러 곳에서 섭외 요청이 왔죠. 이후 대구에서 살고 있는 작곡가를 만나면서 갑작스레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트로트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힘든 일을 겪어보니 저의 굴곡진 인생과 트로트가 닮았다는 게 느껴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에 빠졌어요!

'인생길'이라는 앨범을 내고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씨엔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전화노래방'의 MC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대본도 직접 만들어 가며 1년 정도 전화노래방 MC를 맡았죠. 신인에게 생방송 MC란 로또 당첨과도 같은 기회였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나온 후 신중하지 못했던 투자로 여윳돈을 다 날린 상태라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만두고 다른 직장의 면접을 보게 됐죠. 3차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고 말해줬어요. 도전하고 싶었지만, 입상의 경험이 있는 제가 전국노래자랑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망설여졌어요. 그러다 모집 마지막 날, 지원 마감 1분을 남기고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선을 치렀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죠. 이후 본선에서는 박훈의 '나무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만 1등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또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 또 어떤 우여곡절을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해보려고요. 김칫국부터 마시긴 이르지만, 저도 한류열풍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알아봐 주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곧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트로트 가수 '최병윤'을 지켜봐 주세요. 좋은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사진으로 함께 보는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

지난 4월 21일, 우리 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비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이에 빠르면 7월부터 광활하고 아름다운 압량벌 캠퍼스를 누빌 신입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사를 기획했다.



천마지문은 우리 대학교의 정문으로 영남대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여요. 길고 웅장한 게 특징으로, 높이 솟은 조형물은 거침없이 비상하는 천마인과 천마인의 높은 저력을 상징해요.



노천강당은 우리 대학교의 야외 행사장으로 천마지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건물이에요. 각종 동아리방이 있어 동아리에 가입하면 많이 방문하게 될 곳이에요. 또한 우편취급국이 있어 각종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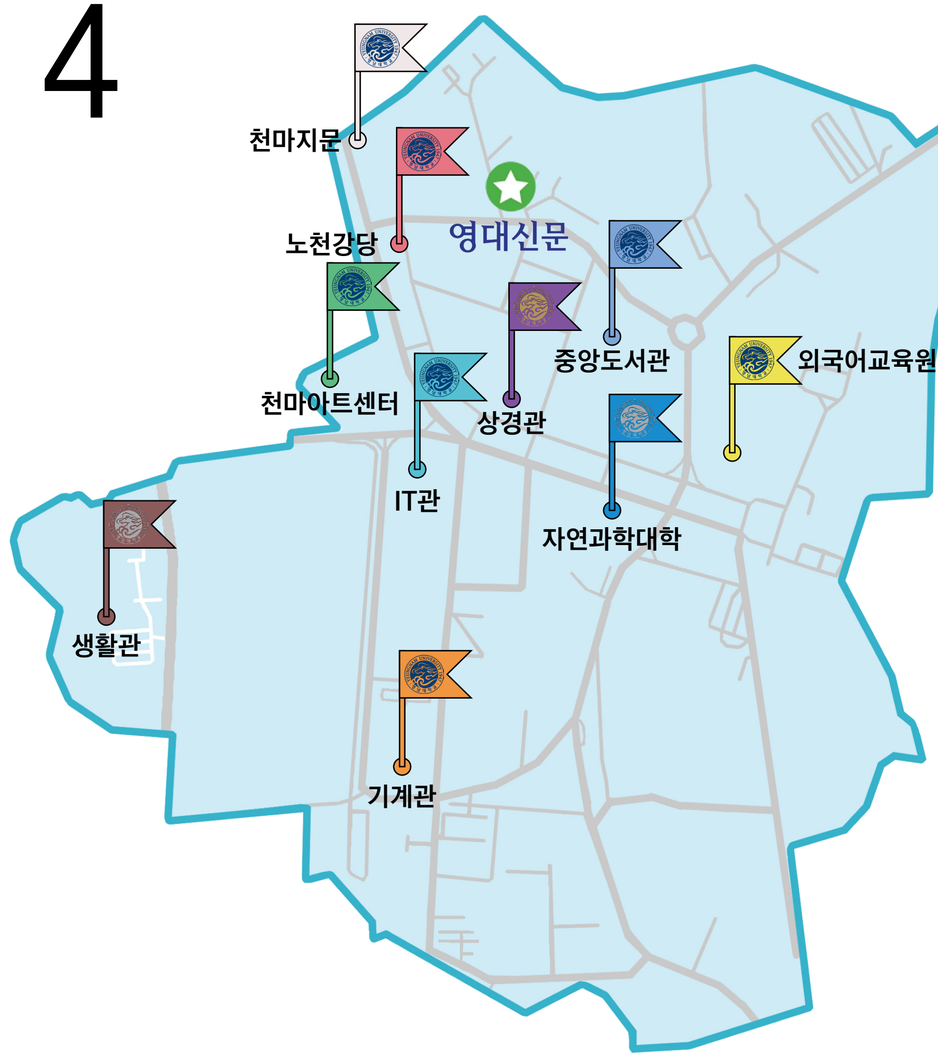


천마아트센터는 우리 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건물로 공연과 전시를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내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종 콘서트나 연주회도 진행해 문화적 교감의 장도 제공해요.



이곳은 공과대와 기계·IT대가 있는 IT관이에요. IT관 앞에는 우리 대학교의 교훈 중 하나인 "새 역사의 창조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IT관 왼쪽 공학로를 따라가면, 공학 계열 학부(과)가 건물별로 나열돼 있어요.

4





상경관은 상경대와 경영대, 야간강좌개설부가 위치한 건물로 큰 규모를 자랑해요.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건물에 비해 편의시설이 많은 편이에요. 편의시설로는 편의점, 복사실, 열람실, 대구은행 ATM 등이 있어요.



우뚝 솟아 멀리서부터 우리 대학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주는 건물, 중앙도서관은 사진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게 특징이에요. 중앙도서관은 10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열람실과 도서실, 각종 연구소, 세미나실, 카페, 복사실 등이 있어요.



외국어교육원은 학교 교양수업과 외국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토익 수업 등 다양한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많은 외국인 교수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편의시설로는 카페와 스터디 룸이 있어요.



생활관은 ▲화랑관 ▲덕선관 ▲성지관 ▲청운관 ▲향토관 ▲고시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생활관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같이 거주하며 편의시설로는 식당, 편의점, 독서실, 택배실, 전동킥보드 충전소가 있어요.



기계관은 기계·IT대 행정실이 있고 기계공학부 수업이 이뤄지는 장소예요. 양쪽 큰 건물 사이에 있는 회랑은 기계공학부 동문들이 기탁한 발전기금으로 구성된 스터디 룸으로, 그 시설은 타 학부(과)생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자연과학관은 자연과학대 수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사진 속 건물 외에 2개 더 있어요. 자연과학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1학년 때 실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거쳐 가게 되는 건물 중 하나예요.

천마로를 거닌 사람



고명재
시인
(국어국문학과 06학번)

| 약력
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등단
現 우리 대학교 국어국문과 강사

오랜 기다림을 마치고 새로운 길 위에 선, 고명재

고명재 동문(국어국문06)은 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되며 문학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사람이 됐다. 이에 그를 만나 대학 시절과 철학 등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창 시절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는가.

인문관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국문학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여덟 시간을 국문학 공부에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노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며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상주하며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시집을 돌려봤던 순간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강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융복합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글을 보는 게 기억에 남아요. 학생들의 글을 본다는 것은 한편으론 양이 많아 고통스럽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재미있어요. 그래서 학생 이름을 까먹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적어준 이야기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면 누구인가.

악기 전공자에게 가장 존경하는 연주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곡마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좋아하는 시인은 참 많지만 한 시인을 꼽아 가장 사랑스럽다고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그 중 두 사람을 뽑는다면, 사회의 약자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진은영 시인과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리던 故 허수경 시인을 좋아해요.

본인에게 시는 어떤 의미인가.

저는 아직 한 번도 제가 쓴 시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 적이 없고, 그냥 '맘에 든다' 또는 '맘에 조금 덜 든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더 잘 써보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는 누군가의 살냄새와 누군가가 통과했던 시간, 누군가가 해보고자 했던 것을 글로 나타낸 것이기에 단번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시는 찰나의 기쁨을 마주할 수 있게 해 단순한 문구로써의 깨달음을 넘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시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시인 중에는 세상 자체를 다르게 보는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반면 저는 시를 쓰면서 '난 정말 시 쓰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재능이 없음을 자각했음에도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창 시를 쓸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하루 종일 시를 썼어요.

시를 쓸 때 영감은 어디서 받는가.

보통 시인들한테 영감에 대해 물으면 '와, 뭐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시를 쓰며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실패하는 걸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언어가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

미발표작인 '북'이라는 시예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세월호와 같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북'이라는 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썼던 시라서 애정이 가요.

> "남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그만이에요"

시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 리얼리즘처럼 단순히 사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각으로 진실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시를 쓰기 시작한 지 7, 8년이 지나면서 '언제 등단이 될까?', '내가 쓴 시를 아무도 안 봐주고, 그냥 이렇게 쓰다가 혼자 가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힘들었어요. 당시 대학원 공부를 할 때라 강의도 인간관계도 없어 공부만 하니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러다 '아무도 내가 쓴 시를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즈음 당선이 된 것 같아요.

202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바이킹'이라는 작품으로 등단됐다. 당시 기분은 어땠나.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등단 후 꽃을 사서 어머니에게 갔는데, 당시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아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팥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죽 쑤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엄마 나 등단됐어"라는 그 말을 10년 만에 처음 할 수 있었죠.

'바이킹'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수성유원지에 있는 낡은 바이킹을 타고난 후, 시를 쓰게 됐어요. 당시 저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늘 시를 쓰다 보니 일상생활이 매우 건조했어요. 또한 10년 동안 낙선되다 보니 마음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성유원지에 가 즉흥적으로 바이킹을 타게 됐어요. 맨날 책만 읽고 공부만 하다가 하늘에 가까이 가니, 숨이 확 트이면서 바이킹으로 시 한 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선 소감에 시의 화자로 영재라는 분을 언급했는데, 영재는 누구인가.

영재는 제 동생이에요. 집이 어려워질 적부터 제가 항상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가난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생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영재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의 당선 소감으로 김문주 교수님을 언급했다. 김문주 교수님은 본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문예창작론'이라는 수업에서 김문주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 대학교에 부임한 후 처음 맡으신 수업이셨는데, 그 때 교수님이 "이 수업은 '시창작론'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와 소설을 배우고 싶었던 저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고 교수님께 계속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을 알아갈수록 교수님은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나 무너질 때 나를 잡아 줄 수 있는 분이란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은가.

일상 속에서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손톱을 깎는 모습, 동생이 나물을 편식하는 모습과 같은 것들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죽을 때 나를 이루는 가장 큰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요.

또한 타인의 아픔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시를 쓰고 싶어요. 강의를 하며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에 이들을 위한 시를 쓰고 싶어요.

시인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

보통 목표를 이루려면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글 쓰는 일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계속 쓰려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살아도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른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본 바에 의하면 남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스스로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그 덕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글을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자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지방에서도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근처에 작게 글 쓰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를 통해 여기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글 쓰는 친구들에게 제가 당장 무언가 해주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다들 잘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김민석 기자 kms0422@ynu.ac.kr
이연주 기자 lyj0827@ynu.ac.kr
조은결 기자 jeg1224@ynu.ac.kr

인터뷰를 마친 기자들의 이야기

아직 겨울의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쌀쌀한 2월에 봄 햇살과도 같은 고명재 시인을 만났다. 고명재 동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고명재 동문이 사랑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것이 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인터뷰 당시 고명재 동문은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줄 즈음인 1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시에 대한 자신만의 열정을 불태웠다. 이를 통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10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님에도 사회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를 보며 필자도 진심을 다해 열정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됐다.

덧붙여 시인 고명재는 '시'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어떤 시든 만족하지 않고, 새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그가 멋있었다. 주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낄 줄 알고 슬픔을 위로할 줄 알았다. 사소한 일상과 시를 멀리하지 않는 그는 어쩌면 그의 인생과 시 사이에 간극이 없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는다는 삶의 지혜와도 같은 그의 당선 소감을 떠올리며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

작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질환이 팬데믹이 되었다.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는 626만 명,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어 각 나라에서는 국경 및 사회 봉쇄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 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부분적으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기 강의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일부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도입되는 등를 하면서 우리는 현재까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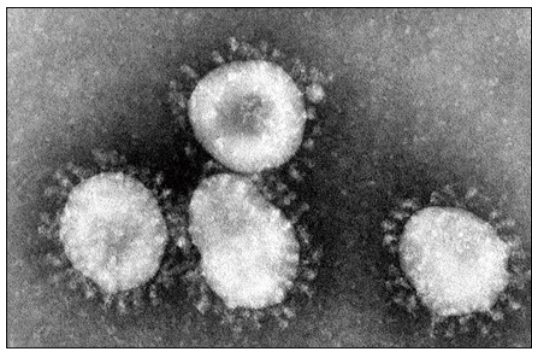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공식 명칭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이하 SARS-CoV-2)이고,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의 명칭은 COVID-19이다. SARS-CoV-2는 생물 분류상 니도바이러스 목, 코로나바이러스 과, Orthocoronavirus 아과에 속하며 2002년 말 중국에서 시작하여 2004년까지 29개국으로 퍼진 사스를 유발하는 SARS-CoV-1, 2015년에 우리나라서 유행했던 메르스의 원인인 MERS-CoV와 같은 베타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속한다. 코로나(Corona)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으로, 태양의 주변부에 보이는 코로나를 따서 만든 명칭이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외피에 돌기들이 있어 태양의 코로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사스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는 돼지, 고양이, 쥐와 같은 동물들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만, 사람에게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는 원래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바이러스로, 사람에게서 매우 중증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였고 유전적으로도 기존의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와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여 전염력이 매우 높은 한편, 특히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자가 되어 있고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전파를 시키게 된다.

바이러스란?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이다. 육안으로 볼 수 없어 미생물로 분류된다. 세균(박테리아)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이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구조와 특성이 완전히 다른 생물체이다. 크기도 세균은 대략 0.5~5㎛, 바이러스는 20~400㎚로 바이러스가 나노 사이즈로 훨씬 작다. 십수 년 전부터 인류가 열광하고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생물체인 것이다. 일반적인 생물체들은 적절한 영양분과 습도, 온도 등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증식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자신의 유전 정보(핵산)와 아주 극소수의 효소들 및 핵산을 싸고 있는 단백질(캡시드), 지질(외피) 등만을 가지고 있어(그림 2) 살아있는 다른 세포(숙주)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증식을 할 수 없다. 증식 방법 또한 일반적인 세포의 증식 방법인 이분열(유전정보 및 모든 구성성분을 두 배로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성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기계의 부품을 조립하듯 증식하므로, 증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확률이 높다.

바이러스를 분류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유전자의 핵산 종류이다. 동물, 식물, 세균, 곰팡이 등은 모두 자신의 유전정보를 DNA를 통해 전달하지만,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를 유전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핵산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두 가지로 구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변종이 잘 생기는 이유는 DNA보다 RNA는 복제과정에서 염기서열이 잘못 끼어들어 가도 교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변이가 많이 생긴다.

핵산 외에 바이러스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외피 유무이다. 바이러스 구조상 지질과 당단백 성분을 함유한 외피의 유무에 따라 외피 보유 바이러스와 외피 미보유 바이러스로 구분된다(그림 2). 지질 성분은 비누와 같은 계면활성제나 알코올 등에 쉽게 파괴된다. 외피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누로 손 씻기, 소독용 알코올로 세정을 하는 것으로 쉽게 바이러스 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으로 비누로 손 씻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제, 백신 개발

바이러스가 숙주에 의존해서 증식하다 보니 20~30년 전만 해도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검물을 동물이나 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하거나, 환자의 혈액 내에 특이 바이러스 항체 유무를 판단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각 바이러스는 자기가 증식할 수 있는 동물이나 세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양율도 낮고, 기간도 오래 걸려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바이러스, 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을 알면 환자의 가검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여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자 격리가 필요한 경우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유전자 증폭 방법의 진단도구를 빨리 개발해 사용함으로써 많은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 독성보다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의해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 및 면역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등에 의한 증상, 즉 발열, 오한, 피로감, 근육통 등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므로 초기에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지 증상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무척 많은데, 호흡기 증상 외에도 미각과 후각이 없어지는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급격하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 많은 양의 다양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들이 한꺼번에 생성되어 여러 장기를 동시에 망가뜨려 사망에 이르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분자생물학과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제, 백신 개발이 신속해졌고 표적을 찾는 일도 과거보다는 수월해졌다. 코로나19가 발견된 지 6개월밖에 안됐지만 이미 백여 가지의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약물들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효능을 입증할 만한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됐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도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사망자가 더 생긴다는 보고도 있어 아직 그 효과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 국내에서도 이 약재의 특례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치료제 중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혈장 치료제이다. 혈장 치료제란 코로나19를 앓고 회복된 분들의 혈장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로, 이분들의 혈액 내에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있기에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바이러스를 중화 시켜 세포 내로 감염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하신 분들의 헌혈이 없이는 치료제를 만들 수 없어 완치된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완치자들의 혈액만 빨리 모을 수 있다면 혈장 치료제는 빠르면 연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백신을 개발해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5~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데 동물실험인 전임상시험을 비롯하여 세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효능을 입증하는 시험법의 개발과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도 RNA 바이러스로 1980년대 초에 발견되어 40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와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대신 HIV 증식과정의 여러 단계를 각각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spike, RNA 복제 효소, 캡시드 등에 염기서열이 하나씩 변이가 생기는 단일염기 다형성이 발견되어 2019년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바이러스와 조금씩 다른 변종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변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 전파력이나 병원성 등도 바뀔 수 있고 특히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의 표적이 되는 부분들에 변이가 생기게 되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인 백신은 배양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서 우리 몸에 투여해도 증식을 하지 못하는 불활성화 백신과 감염력은 가지고 있지만, 병원성을 약하게 만든 약독화 백신이다. 일본뇌염백신이나 A형 간염백신은 불화 백신이고 홍역, 수두, 이하선염백신 등은 약독화 백신이다.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면역력을 잘 유발하는 특정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자만을 클로닝해 세균이나 효모 등에서 단백질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서브유닛 백신이 개발되었고 현재 사용하는 B형 간염백신이 대표적인 서브유닛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킨 후 바이러스 유사입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위의 방법들 외에도 특정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만을 직접 주입하는 DNA 백신, RNA 백신도 개발되고 있고, 다른 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만을 끼워 넣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도 개발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중화항체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바이러스 외피의 돌기에 있는 S 단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작할 때 세포에 부착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기도 하다. (그림 3) 따라서 대부분의 백신이 이 항원을 타깃으로 항체를 만들도록 개발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인류

바이러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감염이 되며 영향을 미쳐왔다. 사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질병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식세포 유전자 안에 끼어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 유전자 내에는 많은 내인성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존재한다. 우리 몸 안에 정상 세균총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합성하고 다른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처럼, 내재한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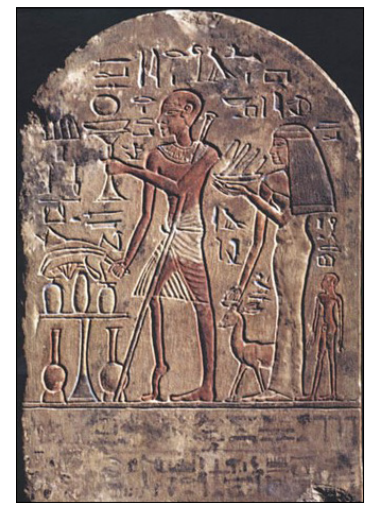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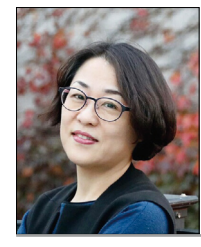


그림 4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지만 1979년 이래 지구상에서 박멸된 질병인 천연두의 흔적을 기원전 1100년경의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미라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 18왕조(기원전 1570~1293년)의 비석 가운데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면 한쪽 다리가 가늘고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그림 4), 이 사람은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회백수염(소아마비)에 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천연두 백신과 폴리오 백신의 전 세계적인 공급 노력으로 인류 역사상 두 종류의 바이러스 질환은 거의 박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스, 신종플루,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열, 메르스, 코로나19 등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변종 바이러스들에 의한 질병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금류 및 가축들의 바이러스 피해도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현재 동물, 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을 총망라하여 5,5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국제바이러스명명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사람 바이러스가 아니었던 것들을 인간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 파괴를 멈추어야 하고 야생동물의 포획이나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가금류나 가축의 집단 사육도 동물들의 위생환경을 저해하고 면역력 저하를 유도해 감염병 발생 시 집단 발병을 일으키므로, 가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여 지구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그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박호선 교수
미생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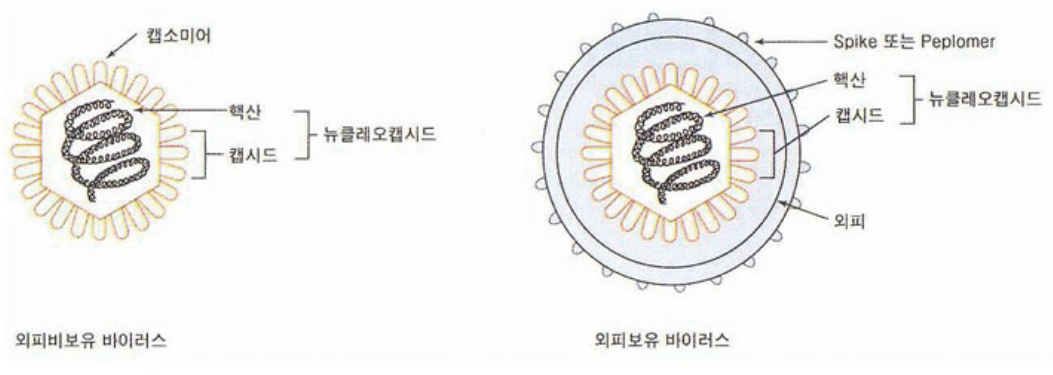


그림 2 외피비보유 바이러스(왼쪽)와 외피보유 바이러스(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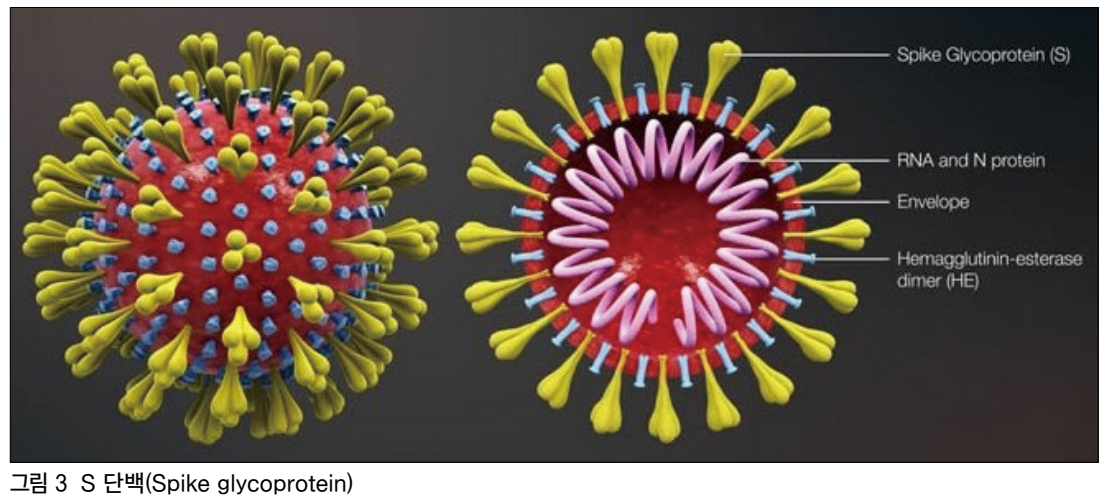


그림 3 S 단백(Spike glycoprotein)

사설

늦은 인사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영대신문이 이제야 독자 여러분께 늦은 인사를 올린다. 아울러 종강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올해 첫 호를, 그것도 인터넷상으로 발행하게 된 이 민망스러운 사정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한다. 또한 온갖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캠퍼스를 아직 누리지 못했을 신입생 여러분께, 그리고 길이 추억이 될 사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떠나야 했을 졸업생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코로나19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확진자는 무려 700만명을 넘길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 단 하루만에도 사망자가 4~5,000명, 확진자는 8~9만명씩 늘어날 정도로 강력한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언제쯤 가라앉을지,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한때 그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던 우리 사회는 다행스럽게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모두가 노력하고 잘 적응한 결과이다. 돌이켜 보면 우왕좌왕했던 적도 있었다. 부족하고 답답하게 느껴진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던 평온하던 시절과 비교하지 말자.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닌가? 어느 때보다 너그럽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낯설기만 하던 텅빈 캠퍼스와 강의실, 출입금지 안내,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자가격리', '비대면수업' 등 그 동안 별로 듣지 못했던 표현들에도 익숙해졌다. 놀라운 변화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저 강요된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가?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미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다른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어서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모처럼 자리를 함께 한 모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코로나19는 한편으로, 만남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 주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온 어려움이라도, 그 강도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이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거나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 있다. 내 친구가 내가 몰랐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소수자, 약자들을 둘러보는 따듯한 마음이 절실하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캠퍼스가 꽉 차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활기찬 발걸음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이 대처해야 할 일도 많지만,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는 등, 대학의 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영대신문도 학내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빨리 지면 발행으로 전환하여 독자 여러분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동주 언론출판문화원장

만평



영대신문이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과 부조리를 개선하고 싶다면, 취재를 통해 시원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자들을 찾아주십시오. 글로 말하고 싶은 바를 나타내고자 할 때도 영대신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고견(高見)을 기다리겠습니다. 영대신문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좋습니다. 이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정신을 구현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기(公器)가 되겠습니다.

영대신문을 읽고

영대신문은 대학인의 양심을 대변합니다



손한원
독자평가위원
행정3·휴

1656호는 2020년을 이끌어갈 학생자치기구 선거 소식으로 채워졌다. 1면에서는 학생대표자 선거 결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나타냈다. 직접 투표를 하는 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워 지면 배치가 깔끔했다. 이어 특집면에는 주요 학생자치기구 당선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들의 사진이었는데, 기사의 대제목과 비슷한 느낌을 담은 포즈를 취해 재밌었다. 이번에 당선자들은 공통으로 '소통'을 강조하며 현재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단순히 '소통을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이 이러하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세 자치기구뿐 아니라 단과대·독립학부의 자치기구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리그를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

종합면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문제들이 개선된다는 소식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는 소식이 실렸다. 모든 문제들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만큼은 기존의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왜 해결을 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한 홍보가 덜 되어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지,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구분하여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환경과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학면과 문화면에서는 각각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영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두 기획 소재 모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뤘다. 비정규직과 여성은 모두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업무 강도와 사회에서 여성 참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 대신 차별만이 돌아온다는 것 역시 비슷하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레이아웃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대학면에서는 기자의 생각이 전문가와의 인터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아쉬웠다. 문화면에서는 좌우로 영화 필름을 형상화한 레이아웃으로 시선을 사로잡아서 좋았지만, 동시에 글이 너무 세로로 길어 가독성은 다소 떨어졌다.

사회면에서는 악플 현상을 다뤘다.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악플은 매우 '심각하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생산적인 비판 대신 근거없는 비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의성, 2030, 우리 대학교, 대구·경북. 이 네 가지 단어는 바로 기획 기사를 쓸 때의 기준이다. 한때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를 찾기 위해 밤새며 고민했었는데, 어느새 그 기준에 잘 맞는지 평가를 하는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영대신문에서 기자로, 독자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시간 모두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영대신문의 구호인 '영대신문은 대학인의 양심을 대변합니다'를 지키기 위해 아마 지금도 편집국인 학생지원센터 306호는 불이 켜져 있을 것이다. 영대신문 구성원처럼 우리 대학교 학우들도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취재일기

채식주의자와 퀴어 혐오의 상관관계

2016년 멘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이 소설은 채식주의자가 된 영혜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인들의 갈등을 묘사하며 인간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이다. 약육강식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인간은 수많은 다른 종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 살육의 역사를 거치며 오늘날 우리의 발밑에는 우리가 짓밟은 다른 종들이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폭력성이 동식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나와 다름'을 향한 폭력성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러한 '다름'을 무참히 잡아먹는 폭력성은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향해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 중 세상의 관심은 새벽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부분에 집중됐다. 한 언론사는 보도 기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제목에 '게이클럽'을 명시했고, 확진자의 직업 및 근무지역 등 신상정보를 노출했다. 이후 그 언론사는 기사를 수정했지만, 해당 보도가 발생시킨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혐오로 그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창에는 '게이', '게이 클럽' 등의 단어가 순식간에 올랐고, '성소수자의 행태가 처벌받을 만하다', '비정상적인 집단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댓글로 비난이 난무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아직 혐오를 겪으며 살아간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는 사회가 규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다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참히 짓밟혔다.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자 그녀의 지인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영혜를 마치 병에 걸린 사람 취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다름'을 가진 성소수자들 또한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필자의 지인은 언제나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퀴어 혐오 기획 기사를 쓰면서 만난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는 누군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반을 나누는 것,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 그들의 일상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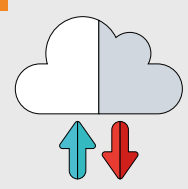
채식주의자와 우리 사회에서 표현된 폭력은 '은밀한 악'이다. 직관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는 악과는 달리, 우리 삶과 생활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그것이 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악이다.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그랬듯, '나와 다름'에 행사하는 폭력을 우리는 지금껏 쉽사리 지적하지 못했다.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억압하고 혐오를 행사하는 우리의 '은밀한 악'을 감히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는 그런 우리를 '폭력의 주체'로 고발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폭력의 주체가 아닌 '연대의 주체'로 다름을 인정하고 성소수자와 연대할 때이다. 또한 그들이 커밍아웃하는 것이 혐오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닐 때도 됐다.

조현희 대학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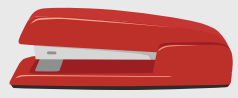
3분 고유어 쉬운맛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한자, 일본어, 영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여 있다. 이에 '3분 고유어'에서는 3분 동안 가벼이 읽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순우리말 표현을 소개한다.

[일상 속 외국어 바로잡기]



다운로드 → 내려받기



스테이플러, 호치키스 → 종이찍개



키 → 열쇠

['여름'과 관련된 순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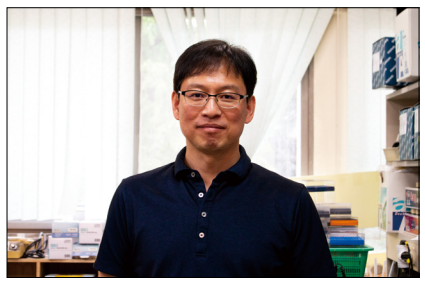
오는 6월 22일은 24절기 중 열 번째 절기인 '하지(夏至)'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길어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여름과 관련한 순우리말을 알아봤다.

1. **빨래말미**: 장마 때 빨래를 말릴 만큼 잠깐 해가 드는 겨를
아쉬운 대로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말미를 의미한다. **예시) 칠월에도 빨래 말미는 있다.**
2. **서늘맞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 서늘한 바람을 쐼
무더운 여름, 극장가에서는 '납량특집'이라고 하는 무서운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온다. 이때 납량(納凉)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서늘맞이가 된다. **예시) 이번 서늘맞이는 산보다 바다가 좋을 것 같아.**
3. **잠비**: 여름철에 내리는 비
여름철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하고 잠을 잔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시) 잠비도 오는데, 일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게 어때?**

조은결 기자 jeg1224@ynu.ac.kr

교수님 탐구생활

생명과학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석호영 교수



실험실에서 만난 석호영 교수

석호영 교수(생명과학과)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 우리 대학교 교수가 됐다. 그는 2015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관식 대통령 표창과 2020년 우리 대학교 천마 아너스(Honors) 인증패를 수상했다. 이에 석호영 교수를 만나 그의 교수 생활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배우지 못해 이 학문 자제가 생소했어요. 이런 저를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해 준 곳은 동아리예요. 동아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생명 다양성을 조사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여러 생물 중에서 물고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평소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물행동학을 전공할 때 직접 물에 들어가 물고기들을 확인하기도 했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화려한 색을 가진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구·경북지역에는 환경과 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유치 활동과 유치 확정 후 자문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강의우수교수로 3번 선정돼 천마 아너스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천마 아너스 인증패를 받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과에 강의를 잘하시는 명강사님들이 많으셔서 부끄러웠어요. 저 또한 청산유수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처럼,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교수님만의 교육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서로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서로 치고 받으며 토론하는 것'이 제 교육 철학이에요.

생명과학과 교수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감각을 표현하고 논리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를 키우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남혜원 수습기자 nhw0314@yu.ac.kr
정유진 수습기자 jyj0925@yu.ac.kr

나도 칼럼니스트

실질적 문맹



조정근
경영4

방학이면 날마다 동성로 술집 앞 가로등 밑에서 잠들던 못난 아들, 뜻하지 않게 방학은 길어지고 긴긴 방학 동안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일을 해 드리자는 결심을 하곤 엄마께 묻는다. "엄마, 도와줄 거 없나?" 그러자 엄마의 대답, "핸드폰이 뭐가 또 말을 안 듣네". 아무리 낡아도 고장 난 게 아니면 쓰자는 근검절약 정신의 어머니, 낡은 폰은 언제나 트러블을 일으키고 고치는 것은 내 몫이다. 나는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 해결책을 검색하고,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뚝딱 고쳐낸다. 어머니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대답, "와 이래 어렵게 말해 쌓노!"

정상적으로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아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즘은 한글을 모니터로만 본 사람들도 한글을 쓰고 읽기에 온갖 매체에서는 연일 한글의 과학성을 칭송한다. 그런데 과연 '글자를 안다'가 '글을 읽을 수 있다'와 같은 뜻일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나는 러시아어를 아주 조금 배웠고, 러시아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러시아어로 쓰인 글이 있다면 소리 내 읽을 수 있고, 내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이다. 즉 나는 러시아 기준으로 '비문맹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는 않다.

2008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문맹률은 1.7%이고, 이중 문맹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층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긴 글을 읽거나 고도의 정보가 담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높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75%만이 실질적으로 긴 글이나 정보가 담긴 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제지는 캐나다와 OECD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 정보, 수량, 구직원서, 금전 출납 등으로 구성된 글을 보고 답을 하는 유형의 문제지이며, 총 5개 단계의 문제로 구성돼있다.

그중 실질적으로 글을 읽는 '문서문해' 항목의 구성을 보면 1단계는 간단한 생활 정보, 2단계는 단순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3단계는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응 가능한 수준, 4, 5단계는 고도의 지식수준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려 38.0%에 달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37.8%이니 무려 70%가량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준의 문서를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을 읽을 사람이면 대학 생활을 하는 중일 테니 대학생의 문해 수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문서문해 시험의 총점이 300점일 때 대학교육 이수자의 문해력 점수는 평균 258점으로, 네덜란드의 중졸자 평균인 26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중학생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것 중에 "세 줄 요약"이라는 것이 있다. 긴 글은 읽기가 싫으니 세 줄로 요약해달라는 것이다. 인터넷 등지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중들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와서 스마트폰과 인터넷보다는 전통적인 책 읽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교 학우들이 조금이라도 더 활자에 가까워지길 바란다. 글을 읽고 이해하며 글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훨씬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영봉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14년, '비민주적인 대학본부를 규탄한다'며 학과 통합 전면 재논의 건과 대학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설치 건으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농성을 벌였다.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에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를 만들어 등록금 반환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경산의 5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은 경산에서 세종까지 200km 종주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개강한 이번 학기도 벌써 기말고사, 즉 종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학기가 끝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육부와 대학의 일관된 태도에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교육부와 대학은 응당한 답을 제시해줘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듣고, 일하는 것을 상상해봤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강의실이 아닌 자택에서 교수들은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을 일이 코로나19로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작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학습권 침해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직접 묻지 못하는 것이었다. 메일로 묻고 답변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필자가 듣는 강의 중 하나는 소리가 자주 끊겨 수강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준비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에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우리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740만 원가량이다. 즉 이번 학기 평균 등록금은 370만 원으로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양질의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 가기조차 힘들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대구·경북 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교육부에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일부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등록금 부분 환불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교육부는 '등록금 책정 및 환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대학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으며,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 교육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등록금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에게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학습권 침해라는 형태로 학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그러니 더더욱 교육부와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제한이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일방적인 이해만 고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와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소정 편집국장

영대신문 1954년 6월 1일 창간

발행인 서길수 편집인 및 원장 최동주 부원장 주지연
편집국장 이소정
인쇄처 중앙일보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F A X 053-810-4722 원장실 053-810-1715
행정실 053-810-1801~2 편집국 053-810-1720~1

독자 쉼터

각 문제의 정답을 지운 뒤, 남은 글자를 조합한 것이 정답입니다.

아	절	내	명	북	디
등	힘	어	비	재	트
마	천	터	너	라	가
경	아	천	대	티	고
마	센	평	구	로	미
트	멀	트	록	스	대

1. [종합]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산출 방식은 ○○○○로 변경됐다.
2. [종합] 우리 대학교 학생이 동아리를 구성해 총동에 등록하고자 하면 매 학기 (재)○○○를 납부해야 한다.
3. [종합] 오는 2021년 2학기, 과학도서관에는 다양한 학습법을 위해 ▲토론을 위한 협력학습 공간 ▲IT 및 ○○○○○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4. [문화] ○○○의 어원은 서양의 춤곡인 폭스○○○에서 왔다.
5. [특집] ○○○○○○는 우리 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건물로 공연과 전시를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6. [인물] ○○○ 동문(국어국문06)은 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 당선되며 문학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사람이 됐다.
7. [여론] 석호영 교수(생명과학과)는 강의 우수 교수로 3번 선정돼 ○○○○○ 인증패를 받는다.

≫ 영대신문 기사를 참고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 6월 18일(목)까지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일로 보내주세요!

6월 18일(목)까지 정답과 소속, 연락처를 적어 영대신문 페이스북 메시지, 영대신문 카카오톡, 영대신문 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페이스북: facebook.com/yunewspaper
카카오톡: @영대신문
메일: pressyu@ynu.ac.kr

요	취	본	학	사	인
망	인	만	일	나	동
확	력	업	호	협	상
미	동	내	림	일	임
에	제	드	금	노	산
인	도	변	년	담	동

◀1656호 정답
내년에 만나요

1656호 정답자
장하영(직원)
임수민(문화인류3)

2020학년도 영대신문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힘찬 포부를 외치며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권지효입니다. 최근 몇 달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이 전달하는 예방지침이 우리 일상에 필수적인 실천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하는 언론의 기능을 통해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영대신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2주간의 수습기자 교육을 마친 후, '좋은 기자는 어떤 기자일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세 가지 다짐을 통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진실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영대신문 독자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 중 무엇을 기사로 쓸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기르겠습니다. 이에 단순히 자극적이거나 신문 지면을 채우기 위한 기사가 아닌, 핵심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기사를 쓸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며 만날 취재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임하겠습니다.

수습기자로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영대신문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지효 수습기자 kjh0810@yu.ac.kr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다짐

안녕하십니까.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김도현입니다. 기자들 가운데는 특종을 좇으며 정략적 보도를 하는 기자도 있으며, 요즘 말로 이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끊임없이 사회를 압박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기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 영대신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람대로 저는 '영대신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자로서 사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은 기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기자는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해선 안되며,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사실'만을 보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를 조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차별을 낳기도 합니다. 이에 경쟁에 의한 차별, 즉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조명해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권력을 항상 감시하며 비판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권력은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기자로서 권력에서 나오는 부조리함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다짐을 함에 있어, 이러한 포부를 잊지 않고 기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영대신문을 떠나는 그 날까지, 독자 여러분께 항상 새로운 기사로 다가가는 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수습기자 kdh0611@yu.ac.kr

기자의 꿈에 다가가는 디딤돌

안녕하십니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남혜원입니다. 저는 평소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바라보기 위해 신문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 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신문의 매력에 빠졌고, 이러한 신문의 매력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기자를 꿈꾸게 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기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영대신문에 지원해 수습기자 하드트레이닝을 거쳐 영대신문 수습기자가 됐습니다. 수습기자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는 대중에게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 사회 정의 실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독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달해 사회를 더욱더 정의롭게 만드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대신문 기자로 활동하다 보면 취재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위기를 방패 삼아 취재를 포기하면 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이 있듯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독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대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것은 제 꿈에 다가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제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혜원 수습기자 nhw0314@yu.ac.kr

꿈을 위한 첫 도약

안녕하십니까.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박수연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은 글을 써서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잡는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대신문 입사 전, '영대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자의 현실을 깨닫고 기자의 꿈을 포기했다'라는 선배 기자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자라는 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입사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대신문 입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때 저는 기자라는 꿈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기자가 가진 권력과 기자의 사회적 위치를 선망하는 제 내면에 숨어있던 부끄러운 생각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정한 기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다양한 시각에서 진실에 기반을 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자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진실을 보도하고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사회가 기자에게 부여한 권위는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무게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게를 늘 인지하고 보도 윤리와 보도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짐한 내용을 항상 잊지 않고 기자라는 꿈의 첫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연 수습기자 psy0528@yu.ac.kr



성실한 기자로 향하는 발돋움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엄수진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는 것에 흥미를 느껴 영대신문에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자 하드트레이닝에 임하면서, 기자에게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주목하는 능력과 성실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영대신문 기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공정하고 성실한 기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하고 중립적인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사의 생명은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기자가 편향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하는 순간, 그 기사는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사는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자는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기자로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 취재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바탕에는 '성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성실함을 갖추고 일에 집중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 또한 처음은 어설프고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어제보다 성장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성실한 기자로 거듭나는 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수진 수습기자 esj0313@yu.ac.kr

독자에서 기자로서의 첫걸음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여강희입니다. 어릴 적 저는 아침마다 읽던 종이 신문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며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매개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신문의 가치를 알고 정보와 여론을 전달하는 기자로서 활약하고자 영대신문에 지원했으며, 2주 동안의 하드 트레이닝 교육을 마치고 영대신문 수습기자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독자였던 제가 영대신문 기자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지킬 세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공정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달자로서 공정한 시각에서 중립적인 기사를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점점 발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글쓰기 능력 역시 미숙하며 기자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이 낮기에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영대신문 독자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꾸준히 발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독자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나 자극적이고 흥미만 좇는 기사는 독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 읽던 기사들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대신문을 통해 독자들이 학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강희 수습기자 ykh0106@yu.ac.kr

기자로서의 첫 만남

안녕하십니까. 경영대학 경영학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이상준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특정 분야의 인물을 취재해, 신속히 기사를 작성해내는 기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영대신문에 지원했고, 면접과 하드트레이닝을 거쳐 영대신문의 수습기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사를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드트레이닝에서 기사의 핵심을 요약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우는 과정이 생소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자로 성장하기에 앞서 독자에게 두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나 공정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함으로써 올곧은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일조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기자로서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구성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독자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영대신문의 많은 기사는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사인 대구·경북과 우리 대학교에 관련된 소재입니다. 저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은 영대신문의 수습기자로서 독자와 처음 만나는 장이지만, 3년의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기자다운 기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수습기자 lsj1031@yu.ac.kr

유(有) 진(進)

안녕하십니까.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1학년 영대신문 57기 수습기자 정유진입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과 일상에서부터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라 사회적 이슈, 인물 인터뷰 등을 지면에 풀어내는 '피처 에디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피처 에디터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 영대신문의 수습기자에 지원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지금 두 가지 약속을 하려 합니다.

첫째, 성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뎌 기자로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대신문에서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의 사건 및 사람을 접하게 해주기에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이에 기자 활동을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둘째, 책임감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영대신문은 우리 대학교의 언론기관으로써 학생과 학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교내 사안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더불어 영대신문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게 된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해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제 이름인 '있을 유(有)', '나아갈 진(進)'처럼 '나아감이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유진 수습기자 jyj0925@yu.ac.kr